교쿠쇼지 절(玉祥寺)

기쿠치시 북부에 있는 교쿠쇼지 절은 1452 년에 이 조동종의 사원을 창건한 기쿠치 다메쿠니(1430-1488)의 통치하에 시작된 문화 개화의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. 다메쿠니는 일족의 정치적·군사적인 힘이 쇠퇴하는 가운데 지방 문화를 지원하는 데 주목했습니다. 무사나 주민에게 교육을 시행하고, 그들이 지적·정신적인 부분을 탐구하도록 장려했습니다. 다메쿠니와 그 아들 시게토모(1449-1493)의 지도하에 기쿠치는 불교와 유교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으며, 시가와 차 문화도 번성했습니다.

교쿠쇼지 절은 다메쿠니가 그의 보다이지(선조 대대의 위패를 모신 절)로서 지었고, 절의 묘지에는 시게토모의 묘 옆에 다메쿠니의 묘가 있습니다. 절의 사당과 그 외 건축물은 화재로 유실되어 몇 번 재건되었지만 현재 본당에 걸려 있는 동으로 만들어진 범종은 몇 세기 동안이나 유지됐습니다. 1496 년에 주조한 이 종은 현재 참배를 알리거나, 기도 신호를 보내는 용도 등으로 울리는 '전종'으로 사용됩니다. 본당의 중앙 제단을 둘러싸는 벽에는 득도한 16 구의 나한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절의 본존은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입니다.